

# 안전한 무주 위한 '잠시 멈춤'

# 무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산불 취약지역 순찰·입산통제구역 통제·불법소각행위 등 감시

군, 공공시설물 임시 중단 등 코로나19 확산 따른 특별방역대책 발표

무주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설 연휴 이후 하루 20~30명대가 지속적으로 발생(2월 17일 현재 405명)을 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각 사별 주재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7일 각 사별 주재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2월 18일부터 24일 까지 군에서 관리(위탁시설물 포함)하는 공공시설물(반디랜드, 수영장, 영화관, 도서관, 체력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민간 위탁시설에도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감염이 취약한 요양시설 및 복지센터(26곳)를 비롯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주1회 PCR 및 신속항원) 중이며 노인요양시설의 접촉면회,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도 모두 잠정 중단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버스타미널,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도 추진한다.

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 각종 회의나 모임을 비대면(서면)으로 개최하거나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타 지역 방문과 초청 자체도 당부하고 나섰다. 농업 등 분야별 교육과 모임 등도 당분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공직 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대민행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핵

심기능(업무) 31개, 수행인력 143명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을 검토·대응(대체인력 투입)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올 설 이전 확진자 수는 106명으로 전북에서도 가장 확진자 수가 적었던 무주군에 설 연휴 이후 2주 동안 무려 299명이 발생을 했다"면서 "연휴 기간 동안 주민들의 타 지역 방문과 출향민들의 고향 방문으로 인한 확산이 많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확산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주일간의 특별방역대책은 '잠시 멈춤'의 계기가 돼 다시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무주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할 뜻을 밝혔다.

무주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 군 홈페이지와 SNS, 문자서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하는 등 동참 분위기를 확산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고통층이 많은 지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하루 2번, 체온 및 신체증상 이상 유무 등)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 건강상담과 약 처방 및 전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일반 관리군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소독약 등)와 식료품(즉석요리류)을 지원하고 밀접접촉자 확인 등 전화역학조사 체계도 계속해서 유지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산불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은 평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불철산불조심기간을 운영(2.17.~5.15.)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산림복지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2명씩 7개소 편성,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8시 비상대기)·가동 중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42명)와 산불감시원(48명)을 군과 읍·면에 배치해 산불 취약지역 순찰과 입산통제구역 통제, 산림연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각산불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도 추진한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산림인접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별 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단위 서약 및 이행을 추진(이행 시 산림청 포상, 소각 시 벌점)하는 것으로 현재 15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산림청 & 무

주군 홈페이지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구역 5,244ha, 등산로 폐쇄기간 39.5km)하는 한편, 산불무인감시카메라(산불 취약지역 7대)와 산불소화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유관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주력하는 한편, 신속·정확한 신고 및 상황 보고 체계를 갖춰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불 초기 단계에는 산불 전담인력(산림복지과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 투입되며 중형 산불 시에는 의용소방대원 등 보조진화대, 야간산불과 대형 산불 시에는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지원을 받는다. 잔불정리와 뒷불감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읍·면에서 맡는다.

무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황인홍 본부장(무주군수)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산불 3단계까지 발령이 되는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다"며 "거센 바람을 동반한 한파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서 산이 많은 우리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기에 산불조심을 시작한 만큼 소중한 자연자원과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탄소중립 실천마을 선정·운영

무주군은 기후변화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실천마을'을 선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고 주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친환경 생활실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사업비 2,800만 원(군비)을 확보하고 관내 읍·면별 6개 마을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마을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최소 30세대 이상 실거주하는 규모화 된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마을 이장이 열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마을 대표는 마을총회 개최 및 회의록과 기초조사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차 심사에 이어 다음달 11일 현장조사를 거쳐 탄소중립 실천마을 6개 마을을 선정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사과 국내육성 우리품종 보급 집중

진안군은 17일 사과 소비트렌드에 맞춰 아리수, 감홍, 찜머김 등 우리품종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사과 주요 품종은 후기 68%, 홍로 15%, 쓰가루 4%, 기타품종 13%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중 홍로를 제외한 품종은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난 신품종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도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ha를 목표로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하고 있다.

사과 우리품종 중 군에서 보급하는 품종은 '아리수', '감홍', '찜머김' 등 세 가지 품종이다.

군은 앞으로 우리품종 신규와 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품질향상사업과 결실안정장제 등의 지원과 역량강화교육, 출하홍보마케팅 지원, 사과 전문조직 육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강화

진안군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에 나섰다.

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1월까지 1,511건(2,264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중 983건을 발급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 된 토지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된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우편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2개월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 또는 등기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군은 홍보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2개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가두캠페인을 벌였으며, 홍보용 마스크를 제작해 배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실시

장수군은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 노부모 시설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2022년 효사랑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부모님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집안에 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1호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2월 말까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개조 시급 여부, 가구 내 소득 등을 고려해 5가구를 선정, 3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홍삼축제 추진 위한 1차 총회 개최

축제 추진 방향 승인·발전방향 등 심의·의결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17일 군청 강당에서 2022 진안홍삼축제 추진을 위한 1차 총회를 개최했다.

진안군 기관사회단체장 및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신규 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임원선출, 홍삼축제 추진 방향 승인, 축제발전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는 매년 10월 홍삼특구인 진안에서 열리며, 홍삼을 테마로한 전국 유일의 축



제이다. 지난 2020~2023 문화관광축제제로 지정되었고 3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진안군 위상을 드높여왔다.

홍삼축제추진위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축제 개최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심화·확대하고 상황에 따라 사전접수를 통한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다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의지를 다졌다.

박명석 홍삼축제위원장은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관광축제를 넘어선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